
전경일보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010면 사람들

농어촌공 파주시사·고양지사,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지사장 전홍성)와 고양지사(지사장 김이부)는 13일 오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에 위치한 애룡저수지에서 파주시, 유관기관, 긴급동원업체 등과 합동으로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당 원류 발생 및 저수지 제방 붕괴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비상대처계획에 따라 상황실을 가동하고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4단계(주의·경계·심각·종료)로 나누어 단계별로 상황전파, 긴급주민대피, 임시복구작업 등을 실시하

는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 참여한 전홍성 파주시 사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가장 필요한 것은 관련기관 간 협조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라며 기관 간 역할 숙지 및 협조를 강조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위급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파주시사는 상세하고 체계적인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실천같은 훈련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진 기자
skibo@naver.com
